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성매매 여성의 재현 양상과 갱생의 의미

강 경 화 (한양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소설 속 성매매 여성들의 구원과 갱생의 의미 |
| 2.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재현 양상과 타성화된 삶 | 5. 맺음말 |
| 3. 수난 표상으로서 가부장적 남성의 폭압과 갱생의 의지 | |

국문초록

이 글은 해방기 소설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재현 양상과 갱생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해방기의 소설들에는 창기, 기생, 첩, 여급, 작부, 양갈보 등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재현되어 있다. 이들이 성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고였지만 몸을 팔게 된 곡절은 기구한 운명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런데 자의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몸을 도구삼아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반면 가부장적 남성들의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은 예외 없이 갱생에 성공하여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들은 구원의 욕망과 갱생의 의지가 있었으며, 조력자가 존재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해방기의 현실에서는 자력으로 갱생과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음을 뜻한다. 이 점에

서 해방기 소설은 갱생에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갱생이 거의 불가능했던 보편적 측면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은 가부장적 남성들에 의한 희생이자 일제에 강점당한 민족적 비극의 알레고리로 존재한다. 때문에 강제된 성매매 현실에서의 해방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자 가부장적 권위와 제도적 폭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주제어 : 해방기 소설, 공창제도, 성매매 여성, 강압적 성매매, 가부장적 남성, 탈매춘, 갱생

1. 머리말

이 글은 해방기 소설에 등장하는 ‘성매매’¹⁾ 여성들의 재현 양상과 갱생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해방은 한국의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뿐 아니라 일상과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과 분단, 여권회복과 여성해방, 공창폐지와 사창 범람, 미군 진주 등의 요인들은 해방기의 일상과 문화 전반에 변화를 일으킨 동인이었다.

주지하듯 해방은 새로운 조국 건설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혼란도 가져왔다. 친일청산, 신탁통치, 정치 체제 등을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이 치열한 이념 투쟁을 벌이는 한편에서, 인플레이션의 격화, 대중생활의 파탄, 부정·부패의 만연, 치안의 난맥, 정부재정의 적자, 사회 불안 등 손 댈 수 없는 난맥

1) 이 글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의 용례에 따라 성매매, 성매매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당대의 일반적인 호칭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창기, 기생, 작부, 양갈보, 매춘, 밀매음 등의 용어도 사용할 것임을 밝혀둔다.

상이 연출되고 있었다.²⁾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 새로운 일상사적 풍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팔십오전’과 ‘사바사바’가 유행하였으며, ‘악질 부로커’와 부정부패가 활개를 쳤고, 요리점과 기생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³⁾

그러나 무엇보다 광란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해방과 동시에 직수입된 ‘자유선풍’이었다.⁴⁾ 그 동안의 구속과 억압이 양키이즘과 해방의 바람을 타고 온갖 ‘자유’로 표출되면서, 자유면 안 통하는 데가 없고 자유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방종의 자유’는 해방기 사회를 휩쓴다. 또한 해방은 민족의 해방이자 여성의 해방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여성계는 ‘일제’와 ‘남성’이라는 “이중의 노예생활에서의 해방”⁵⁾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일부 인텔리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었다. ‘빨내터의 아나네들도 부인참정권을 외친다’⁶⁾고 할 만큼 여성의 각성과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온갖 신문과 잡지와 단체를 통해 터져 나왔다.

특히 해방기 여성계의 대표적인 어젠다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자 여권 회복을 상징하는 공창의 폐지였다.⁷⁾ 그런데 문제는 공창폐지가 사창의 범람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다. 살길이 막막해진 창기들은 가족부양, 생계보장, 부채탕감을 요구하였지만 성병치료와 교화지도 외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⁸⁾ 결국 공창에서 풀려난 절대 다수의 창기들은 사창으로 전락하였으며, 가난한 여성들이 생계수단으로 선택한 것 중 하나가 성매매였다. 그리하여 술한 부녀자들이 “산에 들에 방공굴에 지하실에 소개터에 뒷골목에 다리밑에 공원에 절

2) 송건호, 「해방의 민족사적 의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22면.

3) 「삼수록」, 『동아일보』, 1946. 2. 22-4. 3; 「해방십년의 특산물」, 『동아일보』, 1955. 8. 16-25.

4) 「해방십년의 특산물(1) 자유선풍」, 『동아일보』, 1955. 8. 16.

5) 「창간사」, 『부인』, 1946. 4. 5면.

6) 「미소공위에 호소하는 인민의 소리」, 『경향신문』, 1947. 5. 3.

7) 공창폐지와 관련해서는 박유미, 「해방 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41, 역사실학회, 2010. 4; 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11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1. 10;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 역사학연구소, 2001. 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 보건사회부, 『부녀행정 40년사』, 1987, 61면.

(寺)에 심지어는 가두에까지 진출하여”⁹⁾ 몸을 파는 여성으로 전락하였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높았다. “해방기 여성운동의 최대성과는 바로 공창폐지”¹⁰⁾ 였지만 그것은 다만 일제강점기의 ‘공인-관리’ 제도가 해방 후 ‘목인-관리’¹¹⁾의 형태로 존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 방만한 성의식과 풍기문란을 경계하고 질타하는 담론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크게 부각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¹²⁾ 문단 역시 문학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형상화한 다기한 작품들을 산출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소설들을 검토해보면 공창에 팔린 창기, 기예(技藝)에서 멀어진 기생, 무역상과 부호들의 첩, 유흥가의 급증으로 늘어난 여공과 작부, 미군을 상대하는 양갈보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여성들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성매매 여성 중 어떤 창기는 포주의 학대 속에 청루(靑樓)에서 몸을 팔았으며, 공창폐지 이후 대다수 창기들은 다시 사창의 골레에 몸을 담가야 했다. 뿐만 아니라 단칸방에 세 들어 살았던 누군가의 어머니와 딸들은 밤이면 술집, 카페 혹은 거리에 나가 웃음과 몸을 팔았고, 때론 단칸 셋방으로 남성들을 은밀히 끌어들었다. 어떤 기생은 돈 많은 남자의 첩이 되었으며, 미군의 초콜릿과 양담배 몇 갑에 몸을 맡긴 양공주도 있었다. 이들 모두 해방기 소설에 투영된 다양한 성매매 여성들의 표상이다.¹³⁾

9) 오소백, 「난도 서울의 지하 정조 경매장」, 『신천지』, 1948. 10, 64면.

10) 임미진,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와 여성의 주체화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29, 2014. 4, 55면.

11) 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11권 2호, 2011. 10, 4장 참조.

12) 「현하 여성 풍기문제 좌담회」, 『부인』 2권 3호, 1947. 4; 임궁재, 「학원가 여학생의 풍기문제」, 『대조』, 1947. 8; 고원섭, 「개방된 사랑의 금렵구(禁獵區)」, 『신천지』, 1948. 10; 오소백, 「난도 서울의 지하 정조 경매장」, 『신천지』, 1948. 10; 오소백, 「거리의 정보실 요부들의 소굴」, 『신천지』, 1949. 6.

13) 성매매 여성이 등장하는 해방기 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가나다순), 앞으로 작품 인용 시 별도의 서지는 밝히지 않고 작품명과 인용 면수만 본문에 밝힐 것이다. 김송, 「안개 속의 마을」, 『백민』, 1946. 10; 김송, 「파시의 여상」, 『백민』, 1947. 9; 김광주, 「정조」, 『백민』, 1947. 11; 김광주, 「연애·체백장」, 『백민』, 1949.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해방기 소설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성매매 여성들의 재현 양상과 갱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당대의 여러 문제들을 민감하게 수용하여 형상화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해방기 소설에 성매매 여성들이 어떻게 투영되고 형상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소설의 ‘기생’과 1950년 전쟁 이후의 ‘양공주’ 및 ‘기지촌 여성’에 집중되었다. 해방기의 경우는 특히 박계주의 『진리의 밤』과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에 한정하여 논의되었다. 이 두 작품은 해방기의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었던 공창폐지와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장편소설이고, 이 점에서 두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들은 주로 여성학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공창폐지와 관련된 작가의식, 여성해방운동의 의미, 주체화 방식, 교화의 문제점 및 작품의 비교 등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¹⁴⁾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해방기 공창폐지를 들

-
- 5; 김광주, 「청계천변」, 『문예』, 1949. 8; 김광주, 「악아」, 『백민』, 1950. 2; 김광주, 「남편은 무능했다」, 『신천지』, 1950. 5; 김말봉, 『화려한 지옥』, 부인신보, 1948. 3-1948. 5(이 글에서는 진선영 엮음, 『김말봉 전집4』, 소명, 2015); 박계주, 『진리의 밤』, 『경향신문』, 1948. 10. 1-49. 4. 23; 박연희, 「고목」, 『백민』, 1948. 7; 박영준, 「약질」, 『부인』, 1949. 1; 박용구, 「풍경」, 『문예』, 1949. 11; 박용구, 「1947년」, 『문예』, 1950. 1; 윤금숙, 「불행한 사람들」, 『백민』, 1950. 2; 이기영, 「해방」, 『신문학』, 1946. 4; 이무영, 「삼여인(三女人)」, 『문예』, 1950. 3; 이선구, 「환(幻)」, 『백민』, 1950. 2; 정비석, 「수난자」, 『백민』, 1948. 5; 정비석, 「냉혈동물」, 『신천지』, 1949. 10; 정인택, 「황조가」, 『백민』, 1947. 2; 주요섭, 「혼혈」, 『대조』, 1949. 7; 채만식, 「낙조」, 『잘난 사람들』, 민중서관, 1948); 황순원, 『별과 같이 살다』, 정음사, 1950(이 글에서는 『황순원문학전집 VI』, 삼중당, 1973).
- 14)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32, 2006. 12; 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연대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집, 2008; 박선희, 「김말봉의 『가인의 시장』 개작과 여성운동」, 『우리말글』 54, 우리말글학회, 2012. 4;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운동의 한계」,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4; 임미진,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와 여성의 주체화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29, 한국근대문학회, 2014. 4; 서승희, 「해방과 전쟁 사이, 박계주 소설에 나타난 현실 비판의 함의들」, 『현대소설연구』 6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12.

러싼 성매매 여성의 문제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두 작품에만 한정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분석 대상이 협애하게 제한되었다는 것, 갱생교육을 둘러싼 서사가 초점에 놓인 까닭에 성매매 여성들의 곡절과 삶의 재현 양상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해방기의 많은 소설에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여성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전쟁 전에 발표된 작품 중 성매매 여성들이 등장하는 모든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양상과 갱생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크게 해방기 소설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연과 삶의 모습은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한국문학사에서 갱생에 성공한 성매매 여성들을 다룬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산출된 시기가 해방기였다는 점도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유이다. 물론 작품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삶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몇몇 작품에는 부수적인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마치 퍼즐조각처럼 큰 틀로 짜 맞춰가며 살펴보면 해방기 소설에 형상화된 성매매 여성들의 삶과 갱생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재현 양상과 타성화된 삶

성매매 여성이 등장하는 해방기 소설을 검토해보면 거기에는 비인격적 비난만이 아니라 갖은 성병에도 시달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¹⁵⁾ 성병만이 아

15)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에서 곰녀와 여러 창기들은 성병으로 고생할 뿐 아니라 심한 매질까지 당하며, 안수길의 「범속」에서 한철의 부부도 성병으로 고생하고,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에서 백송희는 창기인 채옥과 잠을 잔 황영빈과 성관계한 뒤에 매독에 감염되고, 채옥은 선천성매독으로 사산한다.

니다. 사회적 멸시도 고스란히 녹아들어 표현된다.¹⁶⁾ 이런 성매매 여성과 관련하여 회피할 수 없는 의문 중의 하나는 갖은 모욕, 멸시, 성병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몸을 팔아야 했던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그들의 재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다. 해방기 작품에서 창기, 기생, 여급, 작부, 양갈보 등의 신분으로 몸을 팔게 된 곡절은 기구한 운명만큼이나 다양하다. 아래는 『진리의 밤』에서 ‘창녀’들을 검거하는 여자 경관이 라디오에서 연설하는 내용이다.

그들에게는 각각 그들의 비참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징용에 끌려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하여 병든 부모를 살릴 양으로, 또는 어린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양으로, 혹은 남자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탓으로, 혹은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고 자포자기에서, 그리고 공창을 폐지시키기만 하고 그들에게 직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의 밥이라기보다 지금 당장의 밥을 위해서 이러한 길을 밟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¹⁷⁾

소설에 재현되는 성매매 여성들은 제각각의 비참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연에 주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의(自意)로 몸을 팔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동기의 태반은 가난이다. 김송의 「파시의 여상」에 등장하는 정숙의 삶은 성매매 여성의 인생 유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녀의 기구함은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첩으로 들어갔다 파시를 전전하는 작부의 운명 속에 응축되어 있다. 정숙의 처지는 당시 성매매 여성의 기구한 사연을 대변한다. 또한 작품에 묘사된 파시의 초막술집과 갈보들의 노골적인 행태는 그들의 열악한 형편과 신산한 운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들의 삶이 막다른 데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16) 예를 들면 “된것안된것 함부로 좃어먹는 년”, “갈보 같은 년”, “고기를 판 돈”(「청계천변」), “창기 따위”, “방탕하고 추악하고 불위생한 생활”, “성병의 근원지”, “매독과 임질 미균으로 범벅이 된 고기덩이”(『화려한 지옥』), “고기덩이를 내매끼는 매음부의 구역질나는 표정”(「정조」), “난봉난년”(「해방」) 등으로 지칭된다.

17) 『진리의 밤』 83회, 『경향신문』, 1949. 1. 14.

‘파시’나 ‘유곽’ 등 특정한 공간의 특정한 여성과 달리 박용구의 「풍경」과 김광주의 「청계천변」은 성매매의 현실을 일상의 차원으로 옮겨놓고 있어 주목을 끈다. 「풍경」도 그렇지만 「청계천변」에는 “해질무렵이면 진한 화장으로 도깨비같은 얼굴을 맨들어가지고는 술집으로 나갔다”가 “가끔 다른 농팽이 들을 달고 들어”오는 작부가 나오고, 갈라진 목소리 때문에 “선술집에도 못나가고 밤중이면 으스스한 뒷골목을 도라다니며 하루밤 고기의 임자를 낚씨질하는”(50면) 밀매음녀가 등장한다. 생활의 곤궁함과 절실함은 이들을 억세고 세차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작품에서 자기가 물어온 ‘놈팽이’와 잠을 잔 작부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은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하루살이의 악착스러움과 절박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결정적인 동기는 가난이다. 이러한 처지는 곧 길거리 작부의 초라한 몰골을 표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유곽처럼 특정하게 구획된 공간의 별스런 여성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데선지 가쁜 사나이의 숨소리가 헐떡거리며(...)그 뒤를 이어서 여자의 안타까워 애쓰며 할딱거리는 숨소리가”(42면) 사방 한 칸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공간이다. 이런 일들이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청계천 뒷골목 좁은 집”(45면)의 건넌방, 문간방, 아랫방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목격되는 일상의 일인 것이다. 「청계천변」은 이런 상황을 객관적 관찰자의 시선으로 묘화함으로써 성매매가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가난한 서민들의 일상에 편만화된 일로 확장시킨다. 이처럼 이들 작품은 성매매의 현상이 일정하게 구획된 공간에서 벗어나 일상 공간으로 폭넓게 벌어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물론 가난한 여성들이 모두 몸을 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방기의 많은 소설에는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몸을 팔게 된 우여(紆餘)한 사연들이 널리 편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¹⁸⁾ 해방기의 경

18) 예컨대 진심으로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데도 아홉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 때문에 평생 첩살이를 전전하는 기생(이선구, 「환」), 생활이 곤란해지자 ‘빠-’에 취직하는 여급(정인택, 「황조가」), 비명횡사한 남편을 대신하여 양갈보가 된 젊은 과부(주요섭, 「혼혈」) 등이 다양하게 재현된다.

제는 생활여건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¹⁹⁾ 이런 상황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서울 밀매음녀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거리에 나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성매매가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하나였음을 말해준다.²⁰⁾ 이런 절박함에 대한 공감 때문인지 생계를 위한 성매매 여성을 다룬 작품에서 서술자의 태도는 냉정한 관찰자의 입장을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멸시, 조롱, 분노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생계를 위한 성매매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몸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절박한 사정과 희생정신은 성매매의 죄의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닥 위안과 명분이 되었을 것이다. 작품에서 이들을 대하는 시선이 비판적이지 않은 것도 그들의 절박한 사정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적인 정서가 전제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작부와 밀매음녀들이 영켜 사는 청계천변의 판자집을 떠나면서 작품의 마지막 문장을 장식하는 “청계천변의 인생은 아름다워질수는 없는것인가?”(53면)라는 주인공의 탄식은 절대빈곤에 찌든 여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정서를 압축적으로 대변한다.

이처럼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처지의 성매매는 불가피한 선택의 한 양상으로 형상화되면서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여성 해방을 방종으로 받아들이 타락한 여성들의 삶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모습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 해방과 방종의 자유가 붓물처럼 터져 나왔던 해방기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무영의 「삼여인」과 안수길의 「범속」에서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몰각하고 타락한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자각하고 자기의 개성과 인권을 찾기 위해 가정을 박차고 나갔다면 그러한 선택은 참된 각성이자 용기 있는 결단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삼여인」의 주옥은 해방을 “한 남성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주부노릇을 하는 질곡에서”(28면)의 해방으로 받아들여 유흥가를 떠돌다 작부로 전락하고, 「범속」의 경숙은 굴종과 허위의 생활을 청산하고 여성의 가치를 찾겠다며

19)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119면.

20) 「하루벌이는 2-4천원」, 『동아일보』, 1949. 11. 21.

가출한다. 하지만 결국 방탕하게 살다가 무역상의 첩으로 몸을 파는 여성이 되었을 뿐이다. 주옥과 경숙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시류에 편승한 여성 해방의 허구적 인식과 몰락이다. 이들의 타락은 해방으로 “일시에 눈이 부신 광명속에 내어 던져진 것과 같은 황홀”(「삼여인」, 28면) 앞에 그만 방향을 잃고 허영에 빠짐으로써 빚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을 팽개치고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한 이들에 대한 반응은 냉정하면서도 단호하다. 예컨대 「삼여인」에서 주옥은 과거의 허영과 자기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책한다. 하지만 작품의 결미는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부박한 운명에 아무런 개선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다. 다만 신세한탄과 속절없는 울음만을 여운으로 남기며 종결된다. 그것은 뼈저린 자책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하는 징벌과도 같은 것이다. 「범속」에서 경숙을 향한 질책은 더욱 직접적이며 신랄하다.

「그리고 더 구역이나나는것은 여성해방의 아름다운 구호를 표방으로 내세우고 뛰쳐나간것이에요. 허영에 눈이어두워 남의 적은택노릇하려고 나신 계집애가 굴종이네 자각이네가 무슨당하는 소린가요. 여성해방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잖어요」(89면)

비판의 핵심은 허영에 빠져 가정을 팽개쳤으면서도 여성 해방의 구호를 내세운 데 대한 분노이며, 그것은 구역이 날만큼 저열한 것이라는 질책이다. 경숙을 향한 비판이 평범한 주부인 애라의 분노라는 점에서 비판의 무게는 더욱 육중하게 다가선다. 애라는 시집살이와 전재민의 “피나는 살림사리에”(86면)도 가족들을 잘 건사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전통적 부덕(婦德)을 지닌 ‘신여성’이다. 그의 가치관에 따르면 가정이 어려울 때 주부는 “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분투해야”(89면) 한다. 이러한 입장에 섰을 때 가정을 버리고 파-티, 마작, 술, 노름 등을 일삼는 경숙은 전통적 여성의 윤리를 넘어선 행위이고, 참된 여성의 해방을 모독하는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다. 분노의 진원은 여기에 있다. 「범속」이 의미하는 바 일상적 평범한 생활 가치를 중시하는 주부 ‘애란’과 허영과 시류에 휩쓸려

타락한 ‘경숙’의 대비는 분별 잃은 일탈의 부정적 측면을 더욱 크게 부각시킨다. 작품에서 애라와 경숙의 가정생활이 시종 교차하면서 전개되는 재현 방식도 양자의 대척점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숙(「범속」)과 주옥(「삼여인」)이 고등교육과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텔리 여성들이라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해방’이라는 명목 아래 가정을 팽개치고 방종하게 생활한 인텔리 여성들이 많았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²¹⁾ 이들의 존재는 인텔리 여성이 방종과 허영 때문에 몰락하기도 했던 해방기의 시류적 특성이 체현된 성매매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해방기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극도의 가난만이 아니라 자유의 방종이나 허영심도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 하지만 재물과 화려한 삶에 대한 선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들에게 성매매는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자기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만이 절대 목표이다. 일테면 박용구의 「약질」에서 경채는 몸을 팔아야 할 만큼 웅색한 살림이 아니다. 그런데도 취직이 쉽지 않자 마카오 무역상에게 몸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름이 변질한 귀부인”처럼 변하고 “방이 세 개나 있는 일본집도 사고 또 식모까지 불러들일”(45면) 정도로 운택해진다. 「악야」에서 쓰니아의 생활이 풍족한 것도 미군 장교와 놀아난 덕택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몸은 생활의 방책을 넘어 물질적 풍요의 기반으로 드러난다. 경제적 풍요에 대한 선망은 매춘의 역사와 더불어 성매매 여성의 뿌리 깊고 오래된 욕망의 한 특성이며, 잘 알려진 대로 이 같은 물신주의적 여성들에게 몸은 곧 상품으로 존재한다.

밤이어서 그런지 비록 짙은 화장은 안했으나, 뺨이도 알맞고 알팍하면서도, 약간 뽀로퉁하게 내밀어진 어여쁜 입술에는 낮에 발랐던 연지가 아직도 다 지

21) 해방기 지식인들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생활감정에서 멀어진 외래풍의 외모와 복장, 전통적 가풍에서 떠나가는 이른바 「해방타일」과 인텔리 여성들의 풍기 문란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섭, 「여성인간의식의 권위를 가지라」, 『부인신문』, 1947. 11. 23; 최영수, 「서울거리의 여자 풍속도」, 『신천지』, 1946. 5; 조규희, 「여성운동의 지향」, 『민성』, 1948. 9, 93면.

위지지 않은채로 붉으스레하며, 가름하면서도 오히려 등그스름 하리만치 탐스러운 얼굴의 윤곽, 그다지 뽀족지도 않으면서, 체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있는 오뚝한 코 (주략) 여인의 보드러운 『자—텐』 『파자마』 위로 떠오르는 멋드러지게 굴곡이 저있는 육체의 선을 더듬으면서, 발끝까지 내려가서 멈춰섰다. 미끈하면서도 알맞게 생긴 발, 양말도 걸치지않은 발, 그리고 그 발톱에는 새발안 『매니큐어』의 광채가 애나멜처럼 반짝이는 것이었다. (95면)

「악야」에서 양공주인 쏘니아의 몸은 남성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간주된다. 그리고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섹슈얼리티로 이미지화된다. 위의 인용에서 보여주는 것은 잘 관리되고 치장된 몸, 관능적인 육체이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나히야 화장하나라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98면)다고 자신할 만큼 치장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전제민인 그녀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원은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젊고 매력적인 외모에 있다. 본인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는 ‘몸’을 중요한 성적 도구이자 가치 있는 상품으로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몸’의 상품적 가치와 더불어 남성들을 다루는 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하면서도 공통된 특징으로 재현된다. 그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서부터 식당, 카페, 카바레, 뺨— 등의 유흥가를 전전한 이력의 소유자로 성장한 데서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세월 동안 겪으며 쌓은 삶의 관록은 남성들을 유혹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뛰어난 수완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몸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물질적 풍요와 부귀를 욕망하는 이 같은 속물적 여성의 전형은 정비석의 「냉혈동물」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형상화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유란은 조선 최고의 요리점을 차지하게 된다. 그녀는 “천품으로 타고난 미모와 능난한 수단으로”(255면) 밤거리의 여왕이 되었으며, 여러 ‘파트너’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대가로 후원을 받으며 사업을 키운다. 그리고 마침내 수억대 재산가인 마카오 무역상을 유혹하고 사로잡음으로써 조선 최고의 요리점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유란이 자기 목적을 위해 거덜 난 후원자를 냉정하게 차버리는 것이나, 돌연사한 후원자 소식에 차라리 거주장스런 존재가 처분되었다고 위안하는 장면은 그들의 몸과 욕망이 ‘냉혈’한 ‘동

물'적 탐욕과 다를 바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약질」, 「악야」, 「냉혈동물」 등의 작품에서 담아내고 있는 성매매 여성은 몸을 적극적으로 수단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부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수치, 자책 혹은 일말의 회의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작품 전반을 통해 밝고 경쾌하며 적극적인 이미지로 부각된다. 경채는 대담하게 손님을 집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어머니에게 더욱 당당하고, 쏘니아는 “은빛 하이힐에 흰빛 이브닝 드레스를 날아갈 듯이 입”(108면)고 미군 장교의 지프를 경쾌하게 타고 다니며, 유란은 “앞날에 대한 화려한 꿈만이 넘쳐 있”(264면)다. 이런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은 이들이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자책하기는커녕 앞으로 더 큰 욕망으로 증대되리라는 것을 명시해준다.

앞서 살펴본 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여성들이 몸을 팔아 가난한 삶을 간당간당 버티며 살아간다면, 이들은 성매매를 통해 삶을 화려하게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이들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한다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명분 자체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를 경제적 풍요와 성공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현실에 순치되어 타성적으로 살아간다. ‘몸’을 도구 삼아 물질적 욕망만을 좇는 이들이 타기해야 할 부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3. 수난 표상으로서 가부장적 남성의 폭압과 갱생의 의지

앞 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사연과 삶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곧 가족 생계, 자유의 방종과 허영, 물질적 욕망의 추구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모두 자의로 성매매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생존이든, 치욕이든, 자책이든, 자족이든 어느 쪽으로

발현되든 스스로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당사자의 몫이다. 이에 반해 가장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것은 강압에 의해 성매매의 구렁에 떨어진 여성들의 삶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치욕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참담한 생활을 겪는다.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에서 오채옥이 겪은 비참한 일들은 이들의 비극이 어디에서 발원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녀는 몸값 이만 원의 뒷에 갇혀 인신구속이 되었으며, 포주의 감시와 강압을 받아야 했고, 유곽 일월루에서 용케 탈출한 뒤에도 늘 경찰을 피해 다녀야 했다. 그 과정에서 흑인에게 강간당하고, 국밥집 남편에게 성추행 당할 뻔하며, 거리에서는 폭행도 당한다. 게다가 아이는 선천성매독으로 사산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아편 중독자인 남편의 빚에 팔려 창기가 된 데서 연유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화려한 지옥』의 오채옥처럼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해방기 소설에서 일정한 정식을 이룬다는 점이다.

1) 어느날 아버지는 술에 몹시 취해가지고 웬 사나히를 데리고 집에들어왔다. 애 복히야 너 이사람따라가거라. 서울서 오신 아저씨다. (중략) 서울서은 사나이는 복히의얼골과 몸매를 유심히 뜯어보고 장터에서 쇠 흥정하듯 아버지를보고 손가락을 쳐들고 한장이면 어떠냐고 동의를 구하고 문서를 내어놓고 도장을 받았다. (『안개 속의 마을』, 92-93면) (강조 : 인용자)

2) 어느날 유곽포주가찾아와서 저를 샅다는 매매계약서를 내어보여주는것이 있습니다. 그 매매계약서에는그이의 도장만이 아니라 제 도장까지 찍혀져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허무와 비애와 전율을 함께 느꼈으며, 그리고 폭발하는 분노 속에서 사분오열이 되는 자신을바라보았습니다. (중략) 그리고 그 속은 대까지 범문화(法文化)하여 공인된 인류최대의 노예 제도요 흡혈지옥(吸血地獄)인 마굴에 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²²⁾ (강조 : 인용자)

아버지나 남편에게 팔린 여성들의 가장 문제적인 상황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풍파(猝地風波)’에 휩쓸린 데서 찾을 수 있다. 1)은 ‘인신매매금

22) 『진리의 밤』 77회, 1949. 1. 7.

지법'으로 공창에서 풀려나 귀향하는 과정을 그린 김송의 「안개 속의 마을」이다. 예문은 이 작품의 주인공 복희가 팔려가는 장면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육(肉)에 주린 짐승' 같은 못 사나이들의 노리개로 7년을 보내게 된다. 그 "썩은 살냄새가 뚝뚝 떨어지는"(90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했던 그녀의 운명이 이처럼 '어느 날' 간단하게 결정된다.

2)에서 보여주는 『진리의 밤』의 설영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녀 역시 아편쟁이인 남편에 팔려 '흡혈지옥 마굴'로 떨어진다. 그녀의 날벼락 같은 '어느 날'도 그렇게 찾아왔다. 설영의 남편은 카페의 여급으로 나가기를 강권하고, 그녀가 벌어오는 돈으로 마약을 일삼다가 급기야 포주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마굴에 떨어진 설영은 '짐승'같은 남자들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아욕의 노예가 되고, '흡혈지옥 마굴'의 참혹한 생활을 겪게 된다.

복희의 '어느 날'과 설영의 '어느 날'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뜻하지 않게' 닥친 이들의 운명은 그러나 남성들이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너 이사람따라가거라"라는 아버지의 한 마디가 전부이고, 설영의 운명도 유곽 포주가 내미는 '매매 계약서' 한 장이 전부라는 사실이다. 가혹한 운명의 변전 앞에 당사자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설영의 간절한 호소도 남편, 경찰, 포주로 연계된 사회와 제도의 거대한 공생 관계에 간혀 무력하게 무시된다. 이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은 아내와 딸을 창기로 파는 남성들이 일말의 회의도, 망설임도, 양심의 가책도 내비치지 않는 모습에서 더욱 부각된다. 충격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가부장적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의미 규정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의 의식 속에 아내와 딸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단지 매매를 통해 양도 가능한 소유물일 따름이다. 이 때 남성 일방의 강압적 결정은 치욕스런 현재, 더럽고 불결한 여성으로 전락시키는 불가항력의 폭력이며, 가족에 팔린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특히 줄지에 맞닥뜨렸다는 데서 오는 허무와 분노는 그만큼 크고 깊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들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도 이해할 수 있

다. 『진리의 밤』에서 ‘흡혈지옥 마굴’의 운명을 저주하던 설영은 그 동안 인질이었던 아이가 죽자 비로소 남자들을 성병으로 복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마굴(魔窟) 생활의 ‘증오’와 남성들을 향한 ‘복수심’은 그녀에게 등가의 감정 외 다른 아무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의 횡래지액(橫來之厄)과 더불어 비극적 상황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니었던 점이다. 오로지 아버지나 남편에 의한 불행이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데도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극악하게 착취당해야 했던 가혹한 현실은 그들의 내면을 참담함으로 짓눌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영의 증오는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봉건적 가부장제가 얼마나 억압적인 권력으로 여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극명하게 드러낸다.

성매매 여성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개업자의 농간에 빠진 여성들의 곡절은 또 다른 삶의 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이기영의 『해방』에 등장하는 춘자와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의 주인공 곱녀는 중개업자에게 속아 성매매 여성이 된 인물이다. 『해방』에서 춘자는 돈 한 푼 벌어서 살림에 보태자는 마음으로 도회에 나왔다가 중개업자의 농간으로 청루에 팔린다. 그리고 “처녀의정조를 빼앗기는 그날부터 인육시장에서 여자로서는 참아 당하지 못할—못남자의 수육을 채워주는 도구”(90면)가 되고 만다. 또한 주지하듯 『별과 같이 살다』는 소작인의 딸로 태어나 하녀, 작부, 매춘 여성으로 전락한 여성의 수난을 통해 민족사의 비극을 그려낸 작품이다. 여기에서 곱녀는 하녀로 있던 김만장네 부자에게 정조를 빼앗긴 뒤 쫓겨나고, 서울로 올라온 후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색시장사에게 속아 술집을 거쳐 평양 청루(靑樓)로 팔려간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곱녀만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색시장사집엔 전국 곳곳으로 팔려가는 어린 여자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는 여성들의 매매가 공공연히 자행되던 비인간적 현실이 담겨 있으며,²³⁾ 그들

23) 여기에는 창기를 공급하기 위해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렸던 일제강점기부터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시기에 인신매매와 방매(放賣)를 알리는 기사가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신보』, 1912. 1. 18, 24, 26; 『여자매매의 악행』, 『동아일보』, 1924. 3. 2; 『인육상에 엄명』, 『동아일보』, 1925. 3. 31; 『여자를 유인매매』, 『동아일보』, 1925. 10. 12; 『생활곤란으로 애처를 방매(放賣)』, 『

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을 더욱 실감하게 만든다. 특히 성실하고 순박한 곰녀가 감시, 구타, 성병 등 ‘갈보’로서 겪은 온갖 고초는 작품 전반에 걸쳐 지난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의 운명은 곧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가부장적 남성들에게 팔림으로써 빚어진 여성들의 가혹한 수난을 표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곰녀의 모습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남에게 먹혀버린’ 식민지 수난의 역사 또한 상징적으로 투영되어 있다.²⁴⁾

한편 가족과 중개업자 등 타의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견 당연해보이면서도 근본적인 그것은 정작 본인의 의사나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운명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큼 무기력하고 가혹한 일은 없다. 앞서 살핀 이들 여성들은 모두 아버지, 남편, 중개업자들로 대리되는 가부장적 남성들의 폭압에 속수무책 당한다. 그럼에도 저항도 못한 채 불합리한 상황을 온전히 ‘몸(人肉)’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난다. 따라서 작품에 그려진 이들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서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모든 책임이 남성들에게 있다는 바로 그 점이다. 작품에서 그들을 판 사람도, 그들을 산 포주도, 그들의 성을 구매한 사람도 남성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팔린 성매매 여성들은 “법문화(法文化)하여 공인된 인류최대의 노예 제도”²⁵⁾의 희생자들로 각인된다. 그럼에도 세상은 “한줌의 쌀을 위하여 부덕(婦德)”을 저버리고 “산(生)고기”²⁶⁾를 판 밀매음녀이며, “고기덩이를 내매기는 매음부”(「정조」)이자 “매독과 임질 미균으로 범벅이 된 고기덩이”(『화려한 지옥』)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실상 책임의 소재와 비난의 화살은 다른 데로 향해져야 한다. 부덕(夫德)을 저버리고 아내와 딸을 팔아버린,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몸을 유린한 가부장적 남성들에게 마땅히 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훗날 자기가 처한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는

『동아일보』, 1927. 7. 30; 「사랑하는 자녀를 방매」, 『동아일보』, 1935. 2. 4.

24)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 2002, 6, 111-112면.

25) 『진리의 밤』 77회, 1949. 1. 7.

26) 「늘어만 가는 매음부」, 『연합신문』, 1949. 2. 8.

점은 이들에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유곽 일월루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깨달은 채옥(『화려한 지옥』), “육에 주린”(90면) 못 사나이들의 노리개였던 지난 삶을 아프게 반추라며 귀향하는 복희(「안개 속의 마을」), 청루에 매인 원인과 그곳에서 결코 놓여날 수 없는 ‘전차금(前借金)’의 무서운 현실을 꿰뚫은 춘자(「해방」) 등은 모두 자기가 놓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설영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전달하는 주체성과 상황을 논평할 수 있는 지성을 지닌 존재”이다. 때문에 인식의 폭을 확대하여 “성문제를 다루는 남성들의 이율배반성과 공모의식, 그리고 그것의 식민지적 기원”²⁷⁾까지 거론한다. 말하자면 공창이란 남자가 남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며, 지옥 같은 자기 삶도 남자들이 만든 것이고, 생활대책이 없는 공창폐지는 단지 허울에 불과하며, 자기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²⁸⁾ 성매매 여성의 입장에서 공창의 모순과 폐창의 한계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식이 이들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하고 탈매춘에 이르게 하는 동인이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핀 바 자의로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현실에 순응하며 타성적으로 살아간다. 반면 타의의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은 자기 처지에 대한 자각과 함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재현된다. 간수의 감시를 따돌리고 “안 되면 죽어 버”^(268면)릴 각오로 유곽을 빠져나온 채옥이나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춘자의 행동은 그런 노력이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런 노력과 실천은 여타의 성매매 여성들과 분명하게 차별되며, 새로운 삶을 향한 갱생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일단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27) 서승희, 앞의 글, 310면.

28) 『진리의 밤』 77회.

4. 소설 속 성매매 여성들의 구원과 갱생의 의미

이제 성매매 여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되새겨봐야 할 부분은 그들의 구원과 갱생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해방기 소설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동시에 공창폐지 이후 그들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명해 줄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에서 그들의 행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재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안개 속의 마을」의 복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세상이 자기를 받아줄는지 고민에 빠진다. 그 순간 ‘애국부인회’의 파견으로 강연을 가던 소꿉친구 정숙이를 만나고,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에 대한 열변을 듣고는 용솨음치듯 삶의 용기를 얻는다. 『별과 같이 살다』에서 곱내는 청루에서 풀려난 뒤 하르반에게 받은 삼백 원과 쌀, 장작 등을 들고 혈벗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결심으로 민호단을 찾아간다. 또한 「해방」의 춘자는 유치장에서 나와 해방된 조국의 투사로서 새 출발을 하며, 『진리의 밤』에서 설영은 지운을 만나 ‘마리아의 집’을 운영하다가 지운과 한녀의 결혼을 맺어준 다음 “사창굴의 창녀들을 위해 즐겨 일생의 진리 속에 파묻으려”²⁹⁾ 자기 길을 떠난다. 『화려한 지옥』의 채옥은 정민혜 여사의 도움을 받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奉仕)의 첫 걸음”(561면)으로 간호부가 되고, 의사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모두 행복한 결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곱씹어봐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소설 속 결말은 당대의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소설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물론 문학 작품이 현실의 기계적 반영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과의 지나친 낙차는 현실감과 개연성 차원에서도 경계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작위적 의도성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고를 요한다. 실제로는 공창폐지 이후 절대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은 매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밀매음을 계속하며 살았다. 예를 들면 800명의 창기

29) 『진리의 밤』 163회, 1949. 4. 23.

중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명에 불과하였다.³⁰⁾ 귀향하는 창기에게는 당국에서 여비까지 지불했는데도 실제 귀향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³¹⁾ 또한 목정동의 창기 280명 중 시의 수용소에 들어온 창기는 4명뿐이었고,³²⁾ 600여명의 창기 중에서도 20여명만 수용되었다.³³⁾ 결국 전체 창기 중 겨우 1-3% 정도만 갱생의 길을 밟았던 것이다. 그나마 성공여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갱생에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의 밤』에서 설명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해방이 되어 비로소 공창제도를 반대한 신사숙녀나 그것을 폐지한 정부나가 그저 놓아주었을 뿐, 그들 창기의 살길을 강구해 주지 않고(…)그들 창기가 그 날의밥을 위해 어찌 할 수없이 사창굴로, 양갈보로 전락하는 것을 그 신사숙녀들이 욕하고 그 정부가 취척하는것을 볼 때 우리는 통곡보다도 웃음이 터졌던 것입니다.³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당국의 부실한 대책에 있다. 공창폐지를 전후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갱생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³⁵⁾ 그러나 성병 치료와 교화 지도 외의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몸은 해방되었으나 생활고는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공창폐지구제연맹’의 교화와 갱생 사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설명의 항변은 이러한 사정에 연유하고 있다. 창기들도 게으른 생활과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공장에 취직해도 정직하게 일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이었고, 식모로 소개했더니 며칠 안 돼서 과거의 습성이 나타나

30) 「“자유의 몸”은 되었건만?」, 『동아일보』, 1946. 6. 2.

31) 「서울 시내 오백여 창부 해방의 가두로 진출」, 『동아일보』, 1948. 2. 12.

32) 「사창으로 전락? 축출된 창기 전부가 행방불명」, 『조선일보』, 1948. 3. 31.

33) 「공창폐지 후 그들의 동향」, 『경향신문』, 1948. 3. 25.

34) 『진리의 밤』 77회, 1949. 1. 7.

35) 김제식, 「공창제 폐지와 조선의 현상」, 『경향신문』, 1947. 8. 24; 정혜나, 「여성시론 공창폐지와 그 여론」, 『경향신문』, 1947. 12. 7; 「공창폐지후의 대책」, 『동아일보』, 1948. 2. 20; 최정식, 「해방되는 창기 오천명」, 『개벽』 77호, 1948. 3.

달아나는 일도 생겼다.³⁶⁾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진리의 밤』에서 창녀들의 생활모습은 부정적으로 재현된다.

그들은 오랜 습관에 젖어 밤을 낮으로 알고 그 대신 대낮이 되어도 잠을 잔다. 일은 죽어라 하고 싫어한다. 저 먹은 설거지는 고사하고 소제조차 하지 않는다. 담배는 피우다가 여기저기 던지기 일쑤요 담뱃재는 되는 데로 방바닥에 흘린다. 게다가 양담배가 아니면 못피우겠다고 불평한다. 옷도 이불도 거들 줄 모르고 방구석에 밀어 던져 처박아둔다. 괴상망측한 유행가가 터져 나온다. 세수도 수건에 물 짖어 얼굴을 닦고는 그 수건을 아무테나 뺨개친다. 그 대신 화장에는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다.³⁷⁾

위의 인용은 갱생교육기관인 ‘마리아의 집’에 수용된 창녀들의 생활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은 『진리의 밤』을 비롯하여 『화려한 지옥』, 『청계천변』, 『풍경』 등의 여러 작품에서 더럽고 게으르며 비위생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생활의 타성만이 아니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전직(轉職)에 부정적이었으며, 고용주 역시 풍기문란을 우려하여 고용을 꺼린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³⁸⁾ 이런 상황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과거의 삶을 탈각하고 새롭게 거듭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하게 확인시켜준다.

작품 속 성매매 여성들의 행로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되새길 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설만의 행복한 결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이다. 첫째 자발적 선택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과 달리 탈매춘에 성공한 작품 속 인물들은 예외 없이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구원과 갱생의 의미를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한 소설적 장치의 하나로 설정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모두 구원의 욕망과 갱생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절실한 동기 또한 수반된다. 『화려한 지옥』의 채옥이 유곽에서 탈출

36) 현동업, 「여성시론 공창폐지에 앞서」, 『경향신문』, 1947. 11. 16; 「새해와 함께 해빛보게될 공창굴의 색시들은」, 『경향신문』, 1947. 11. 16.

37) 『진리의 밤』 108회, 1949. 2. 13.

38) 박유미, 앞의 글, 62면.

할 수 있었던 힘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모성’이었으며, 「장날」의 화실이가 일본을 탈출하게 된 동기는 ‘임신’이었고, 「해방」의 춘자는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탈출을 감행할 실천력을 겸비했다. 『별과 같이 살다』의 곰녀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자각과 무구함을 갖췄으며, 『진리의 밤』의 설연은 지운과의 사랑이 있었기에 인육시장의 무자비한 고통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작품의 이러한 설정은 자의적 선택을 포함한 성매매 여성의 일반에 비춰보면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 속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작품과 현실 어디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매춘에 성공한 이들 곁에 하나같이 조력자 또는 매개자가 존재했던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공통된다. 복희에게는 고향 친구 정숙이, 곰녀에게는 하르반과 주심이, 춘자에게는 정의수, 화실이는 판술이, 설연은 지운 그리고 채옥에게는 절박할 때 구원의 손을 내민 정민혜 여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자들의 조력은 이들의 갱생과 구원이 가능했던 중요한 매개이며, 운명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인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설적 상황을 종합해보면 성매매 여성들의 구원과 갱생은 여러 가지 조건, 곧 당국의 대책, 사회단체의 지원, 매개자의 조력 그리고 본인의 자각과 의지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조합은 얼마나 현실성 있는 경우일까. 이는 해방기의 성매매 정책, 사회적 혼란, 경제적 궁핍, 성적 문란 등 사회문화적 제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이들이 자력으로 갱생과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음을 뜻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앞서 설영의 항변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 탈매춘을 통해 갱생하려는 성매매 여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히 강고하다. 따라서 이들 소설들의 결말은 현실성이 약하며 이 점에서 작위적 의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럼에도 해방기 여러 소설의 내적 결말이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로 마무리된 연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작위적 의도 안에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작품에 투영된 작가들의 의식을 종합해 보면, 성매매 여성들이 자기 처지를 깨닫만 하지 말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경종’, 그들만

의 자각과 의지만으로는 자력 구제가 지극히 어렵다는 ‘현실인식’, “그저 놓아만 주었을 뿐” 그들의 “살길을 강구해 주지 않고 단지 놓아만 준 것을 자랑”³⁹⁾하는 당국에 대한 ‘비판’, “너도 사람의 딸이로구나”⁴⁰⁾라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탈피’,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생리를 모르고 덤”⁴¹⁾비는 폐창구제연맹에 대한 ‘조소’, 진정한 여성해방과 갱생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작가들의 바람과 안타까움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과 갱생에 성공한 여성들이 ‘예외 없이’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이라는 앞서의 언급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꿈녀의 예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이 가부장적 남성들의 폭압에 의한 희생이자 일제에 강점당한 민족적 비극의 알레고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소설에서 ‘여성 수난’은 ‘민족 수난’과 의미론적 등가 관계를 이루며”⁴²⁾ “민족 수난사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표상은 훼손되고 상실된 만족의 상징”⁴³⁾이 되어 왔다. 이 점은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옥과 나란히 서서 옆으로 뚫린 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젊은 여자는 공창 폐지 연맹 위원장 정민혜 여사다. 사무실로 들어가자(중략)채옥을 앉게 하고 정여사도 마주 앉았다. 방금 시커멓게 부어오르는 눈 잔등이며 한편으로 비뚤어진 입이며 피가 얼룩이 저서 말라 있는 코언저리며……정민혜 여사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학대 받는 조선의 여인의 운명을 이 여인의 얼굴에서 남김없이 보는 듯하여 그는 호 하고 길게 한숨을 뿔었다. (『화려한 지옥』, 377면)

39) 『진리의 밤』 77회, 1949.1.7

40) 『화려한 지옥』, 398면.

41) 선우휘, 「깃발없는 기수」, 『현대한국문학전집 12』, 신구문화사, 1973, 21면.

42) 정재택,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12, 460면; 권명아, 앞의 글, 108-112면.

43) 박선애, 「기지촌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12. 280면.

『화려한 지옥』에서 공창폐지연맹 위원장 정민혜가 사창의 위협으로부터 채옥을 구해준 뒤, 그녀의 얼굴에서 본 것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학대받는 조선의 여인의 운명”이었다. 따라서 ‘조선 여인의 운명’을 상징하는 채옥의 구원과 갱생은 일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별과 같이 살다』에서도 곱녀가 삼월이, 복실이, 후구꼬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삶의 과정은 물론, 그녀의 몸이 지주,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해방 후 “모색이 다른”(126면) 쏘련군에게 유린되는 인생 역정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에 이르는 민족의 수난이 곱녀의 인생 역정으로 환치되어 표상된 것이다. 특히 「해방」에서 강제로 팔린 춘자가 유곽에서 탈출하다 갇힌 곳이 일제의 유치장이며, 그를 억압하는 순사의 존재는 곧 일제와 남성이라는 이중의 핍박을 의미한다. 때문에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창기의 신분에서 해방된 춘자의 해방은 민족의 해방이자 남성의 폭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작품 결미에서 보여주는 이들 성매매 여성은 더 이상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열림을 향한 가능성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해방 후 “조선의 일천 오백만 여성”이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앞날을 축복”(『별과 같이 살다』, 127면)한 이유이자, 동시에 8·15 해방이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해 주었을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반노예이던 여성들을 남성과 낡은 도덕에서도 해방”(『삼여인』, 28면)시켜준, 곧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자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식한 까닭이다. 이 점에서 이들 강압적 성매매 여성들의 구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되고 갱생하였다고 해서 진정한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새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작품은 희망과 의욕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들이 걸어가야 할 새로운 삶의 여정은 아직 시작조차 안했기 때문이다. 작품은 다만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린 상태에서 끝나고 있다. 그들의 진정한 구원과 갱생은 성매매 여성이었던 과거와 무관하게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칙과 소설의 내적 상황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려준

다. 이런 점으로 보면 해방기 소설은 구원에 성공한 인물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갱생이 거의 불가능했던 성매매 여성들의 보편적 상황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

5. 맺음말

이제까지 해방기 소설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다양한 재현 양상과 갱생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해방기는 여성들이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존재로 도약하는 시기였다. 특히 공창폐지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중의 해방을 집약적으로 표상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사상은 오히려 급증했으며, 여러 부류의 여성들이 각각의 사연으로 몸을 팔았다.

해방기 소설에는 공창에 팔린 창기, 기예(技藝)에서 떨어진 기생, 무역상과 부호들의 첩, 유흥가의 급증으로 늘어난 여급과 작부, 미군을 상대하는 양갈보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여성들이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이들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몸을 팔게 된 곡절이 기구한 운명만큼이나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작품에 재현된 우여(紆餘)한 사연을 검토해보면 자발적으로 몸을 팔게 된 경우가 허다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모두 생활고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허영과 방탕, 경제적 풍요에 대한 선망, 여성해방의 바람 등으로 몸을 판 여성들의 다양한 삶도 펼쳐있다. 다른 한편 강압에 의해 성매매의 구렁에 떨어진 여성들의 기구한 삶도 짙진하게 그려진다. 이들은 모두 가부장적 남성들의 폭압으로 성매매의 나락에 떨어진 여성들이다. 이들의 강압은 치욕스런 현재, 더럽고 불결한 여성으로 전락시키는 불가항력의 폭력으로 존재한다.

한편 자발적 선택의 성매매 여성들이 현실에 순응하며 타성처럼 살아가는 반면, 가부장적 남성들의 폭압에 의한 여성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자기 처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황인식이 성매매의 현실을 극복하고 탈매춘에 이르게 한 동인이었다. 그런데 갱생에 성공하여 새 삶을 열게 되는 설정으로 마무리되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은 주목할 현상이다. 이는 소설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실제와 다른 소설만의 행복한 결말에 내재된 공통적인 특징이다. 첫째로 갱생에 성공한 작품 속 인물들은 예외 없이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들이었다는 것, 둘째로 이들 모두 구원의 욕망과 갱생의 의지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들 곁에 조력자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설적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여타의 성매매 여성들과 차별되는 예외적인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정에는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이 지극히 어렵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해방기 소설은 구원에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갱생이 거의 불가능했던 보편적 측면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갱생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가부장적 남성들에 의한 희생이자 일제에 강점당한 민족적 비극의 알레고리로 존재한다. 때문에 강제된 성매매 현실에서의 해방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자 가부장적 권위와 제도적 폭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신천지』, 『대조』, 『백민』, 『문예』

2. 논저

-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 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6, 108-112면.
- 김광섭, 「여성인간의식의 권위를 가지라」, 『부인신문』, 1947. 11. 23.
- 박선애, 「기지춘 소설에 나타난 매춘 여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4,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12, 280면.
- 박유미, 「해방 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41, 역사실학회, 2010. 4, 62면.
- 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11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1. 10, 217-231면.
- 보건사회부, 『부녀행정 40년사』, 1987, 61면.
- 서승희, 「해방과 전쟁 사이, 박계주 소설에 나타난 현실 비판의 함의들」, 『현대소설연구』 6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12, 310면.
- 송건호, 「해방의 민족사적 의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22면.
-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9, 역사학연구소, 2001. 6, 215-239면.
- 오소백, 「난도 서울의 지하 정조 경매장」, 『신천지』, 1948. 10, 64면.
-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119면.
- 임궁재, 「학원가 여학생의 풍기문제」, 『대조』, 1947. 8, 25-30면.
- 임미진,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전면화와 여성의 주체화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29, 한국근대문학학회, 2014. 4, 55면.

- 정재립,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12, 460면.
- 조규희, 「여성운동의 지향」, 『민성』, 1948. 9, 93면.
- 최영수, 「서울거리의 여자 풍속도」, 『신천지』, 1946. 5, 152-156면.
- 최정석, 「해방되는 창기 오천명」, 『개벽』 77호, 1948. 3, 78-79면.
- 「창간사」, 『부인』, 1946. 4, 5면.

【Abstracts】

Prostituted women's aspect of representation and meaning of rehabilitation revealed in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Kang Gyeong-hwa

This writing investigated aspects of representation and meaning of rehabilitation of prostituted women appearing in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Many prostituted women such as prostitute, Gisaeng, concubine, waitress, barmaid, and Yangkongju are reproduced in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The basic cause why they unavoidably had to sell sex was the hardships of life but the ins and outs of their selling sex were varied as much as their strange fates.

Meantime, circumstances were set up that prostituted women who were forced to sell sex by men were successful in rehabilitation without exception and lived their new lives while women who voluntarily selected prostitution lived their lives inertly. They had not only desire for salvation but also will of rehabilitation and all of them had helpers in common. This means that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reach rehabilitation and salvage in their own strength during reality in the liberation period. In this respect, through women who were successful in rehabilitation,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paradoxically shows universal aspect of most impossible rehabilitation in reality.

In particular, prostituted women under pressure existed as victims by patriarchal men and as allegory of tragedy of nation occupied by

Japanese force. Therefore, liberation from reality of forced prostitution means not only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but also 'liberation' from patriarchal authority and institutional oppression. That is why this period was the only time when stories of many women who succeeded in their escape from prostituti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were intensively made into works.

Key words: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state-regulated prostitution, prostituted women, forced prostitution, patriarchal men, escape from prostitution, rehabilitation

이 논문은 2017년 10월 8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0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0월 2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